

심한 구토반사를 갖는 환자의 총의치 수복증례

원현두, 우이형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 총의치 장착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평중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총의치 장착시의 gagging이다. 총의치 장착시 gagging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psychologic한 것과 somatogenic한 것이 있으며 somatogenic gagging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유지력의 부족, 부적절한 교합고경, 부적절한 교합접촉, tongue space의 부족, 구치부의 두꺼운 변연, 부적절한 후구개폐쇄, 과도한 후구개 연장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gagging을 해소하기 위해 흔히 구개부를 노출시키는 palateless denture가 사용되나 이는 총의치의 유지력을 감소시킬뿐 아니라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 또한 감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치의 불안정한 동요로 인해 구강점막에 대한 자극을 증가시킴으로 오히려 gagging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잔존치조제의 흡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gagging의 해소를 위해 palateless denture를 선택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기존의 gagging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교육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작된 의치를 제작하여 새로운 총의치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악 #21, #22, #23치아를 지대치로한 가철성 국소의치의 유지력의 부족과 의치 장착시 gagging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gagging을 해소하기 위해 의치의 변연부와 후방부위를 환자 자신이 임의로 조정한 상태로 장착하고 있었다. 환자에 의한 의치의 조정으로 인해 의치의 적합도는 떨어져 있었으며 유지와 지지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 기존의 지대치는 안정되지 못한 의치에 의해 가해지는 과도한 측방력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정되어 치관을 제거후 치근만을 이용하여 overdenture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의치를 제작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기존의 의치를 수리하여 새로운 의치가 제작되기전까지 사용하며 환자의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Direct resin을 이용하여 기존의 의치를 수리하여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후구개 연장선까지 상을 연장하였고 의치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relining을 하고, 의치상 변연을 충분히 연장하였고, 양측성 균형교합을 형성하여 의치의 안정을 증가시켰다.

새로이 수리된 의치에 의해 환자가 gagging에 대해 적응이 됨을 확인한 뒤 통법에 따라 새로운 의치를 제작하였으며, 의치의 유지력 증가를 위해 잔존치치근에 magnet를 부착한 overdenture를 제작한 결과 구토반사가 해소되었고 환자는 이에 만족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